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분석[†]

진영호* · 김영완**

- I . 서론
- II .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
- III . 연구방법
- IV . 일본 제품 불매운동 사례 분석
- V . 결론

주제어: 한일 관계, 불매운동,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 무역 분쟁

|국문초록|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은 한일 관계에서 등장한 양국 간의 대표적인 갈등 표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시기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불매운동 촉발기의 경우, 한일 간 영향력의 관계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 준비를 취하지 못한 한국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불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일 간 영향력의 관계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하여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불매운동 잔존 및 소멸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여전히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관계 형성을 위한 조율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일 간에는 정치적 협상에 따른 외적 변화와 함께, 대중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후 한일 간 이상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대중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계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 [†] 『국제관계연구』 제28권 제1호(2023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23.6.28.1.45>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1096330)
-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제1저자).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석사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故 류석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는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대립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¹⁾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될 때마다 양국의 국민은 상대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무역 분쟁’ 사례는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근접성이 높기에 경제적 대립은 양국 모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하게 된다.²⁾ 특히, 한일 양국 소비자에 의한 불매운동은 여러 대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그 특성상 불매운동 전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피해는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피해로 재확산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든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대립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며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불매운동으로부터 촉발된 양국의 경제적 피해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재생산하면서 양국에게 국제관계 위기의 사태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 확산의 악순환 구조는 학계에서도 주목해 왔는데, 문제해결의 혜안을 찾기 위해 ‘불매운동’을 연구 주제로 삼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관련 논문들은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불매운동의 발단과 전개 과정, 특징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³⁾ 둘째, 개인의 인식과 태도 수준에서 불매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 및 결과 변수들을 실증한 연구들이다.⁴⁾ 셋째, 경제적·사회적 수준에서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발된 결과를

1) Ji Young Kim, “Symbolic politics, the history problem, and the Japan-South Korea security relationship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University of Delaware Doctoral thesis (DE: University of Delaware, 2011), pp. 477–503.

2) 김영수,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제4권 제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pp. 91–120.

3) 송유진, “텍스트 마이닝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특징과 의의 탐색,” 『소비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20), pp. 69–91; 이상연, 이유나, “문제해결 상황이론의 적용을 통한 온라인 공중의 사회적 쟁점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위 분석: 한-일 관계악화에 따른 일본불매운동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pp. 326–341; 이정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일본 불매운동 미디어 분석: 일본 항공노선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논문 (충남: 한서대학교, 2020).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다.⁵⁾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불매운동의 태도, 인식 등에 관한 배경 요인 분석이 많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대부분 관광학, 소비자학, 광고학 등 소비자의 개인 인식 및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의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특정 시점에서의 인식에 기초한 연구이다. 따라서 불매운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띠면서 개인과 사회, 정부와 국가, 그리고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매운동의 변화 과정을 개인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거시환경과 국제관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매운동의 본질적 접근을 통해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 따른 양국 간 관계에 개입되는 거시환경과 국제관계의 구조적 관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론은 나아가 국가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강태중,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일본근대학 연구』제66권(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pp. 195-212; 강태중,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 태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콘텐츠 노출 및 방문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 연구』제70권(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pp. 249-264; 김병찬, 황진수,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캐주얼 일식 레스토랑의 고유성과 행동의도 연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호텔경영학연구』제30권 제3호(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1), pp. 77-91; 김보경, 김미경, “일본 관광불매운동의 참여동기와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관광경영연구』제25권 제1호(관광경영학회, 2021), pp. 73-92; 김재권, 윤지환, “불매운동 관련 특성이 온라인 불매운동 태도와 관광보이콧에 미치는 영향: 일본 불매운동 중심으로,”『관광연구 저널』제35권 제2호(한국관광연구학회, 2021), pp. 67-81; 우미원, 이종윤, 전종우, “일본 제품과 일본 콘텐츠제품 불매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광고연구』제130권(한국광고홍보학회, 2021), pp. 106-133; 유현정, 송유진, “불매운동으로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불매운동 참여의도와 불매동참업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논총』제36권 제1호(이화사회과학원, 2020), pp. 49-79; 이정기, 황우년, “20대 대학생들의 지속적 일본 관광불매 의도 결정요인연구: 불매운동 미디어 노출, 일본 인식, 불매운동 효능감 인식,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영상문화콘텐츠연구』제19권(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pp. 315-352.

5) 전은지, “일수출규제, 역사교육으로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학생 중심 불매운동,”『교육평론』제322권(주간교육신문사, 2019), pp. 114-116; 정성춘, 김영귀, 이천기, 김승현,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7;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산업분석팀,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서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

II.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

1.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은 국제관계이론의 여러 패러다임 중에서 상호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⁶⁾ 네트워크는 ‘국제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된 국가 행위자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복합체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⁷⁾ 그간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 구조가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네트워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후자의 예로는 초국가적 조직의 네트워크가 충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⁸⁾

네트워크 분석은 허브(hub), 파별, 또는 브로커와 같은 관계 유형을 식별하고, 이러한 관계 분석을 통해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신현실주의에서 취하는 구조에 대한 정적인 개념과는 달리 네트워크 관계를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한다.⁹⁾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구성 요소들은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가 있다. 국외 연구자의 경우 대체로 구조, 상호작용의 이분법적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 연구자들은 여기에 행위자를 포함하여 3요소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연구자들 중 권기창(2003),¹⁰⁾ 박양우와 이유리(2013),¹¹⁾ 야스모토 아츠코(2018)¹²⁾의 연구에서는 행위자를 포함해 상호작용과 구조 관

6) Zeev Maoz,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816~2001.

7) 야스모토 아츠코, “한일 국제관광협력의 발전과정 분석: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8).

8) M. Kahler,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9) M. Emirbayer,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3, No. 2 (1997), pp. 281~317.

10) 권기창, “인터넷 내용 규제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pp. 203~230.

11) 박양우, 이유리,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28권 (한국예술경영학회, 2013), pp. 257~285.

12) 야스모토 아츠코 (2018), p. 33.

련 요소로 분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일반 네트워크 이론의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와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사회적 실체’로 정의된다.¹³⁾ 이러한 행위자의 성격은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혹은 경제구조 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포함될 수 있다. 행위자는 네트워크의 범주 내에서 상호작용을 실행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관계구조를 형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호작용이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행위자들이 자원의 교환이나 공동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신뢰 및 합의된 게임의 규칙을 근거로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특정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¹⁴⁾ 네트워크를 이루는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의 신념, 자원, 욕구, 및 전략 등을 교환한다.¹⁵⁾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¹⁶⁾

셋째, 일반 네트워크 이론에서 관계구조는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유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와 이들을 상호 연계하는 양식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행위자들에 의해 관계구조가 형성되며, 일단 일정한 유형으로 관계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활동하는 여러 행위자들에게 역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 김선경, 양재대, 원준연,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행정논총』 제41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3), pp. 253-278.

14) R. A. W. Rhodes,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97).

15) 이순호, “사회복지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분석시각,”『한국자치행정학보』 제14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0), pp. 31-56.

16) 김희연, 한인숙,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pp. 99-122.

17) F. Waarden,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1, No. 12 (1992), pp. 29-52.

2.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 특징 및 적용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특징은 첫째, 여타 국제관계 이론들과 구별되는 구성 요소로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3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행위자들 간 소통 관계를 체계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자유주의나 경제구조주의가 취하는 입장과 동일하게 국가 이외의 다양한 조직,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기업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도 네트워크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행하는 행위자들을 강대국 중심의 행위자에 국한시켜 행위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혀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상호작용을 행하는 행위자들을 특정 행위자로 국한해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자유주의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에 따른 밀접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구조주의와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경제구조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 대해 미시적 수준의 접근을 추가하여 전체 구조의 파악에 있어 행위자와 구조 간의 관계인 미시적 구조도 중요하게 인식한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에 연루된 다수의 학자들도 국제관계의 구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와 ‘구조’ 간 미시적 차원을 파악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일반 네트워크 이론의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특징은 둘째, 환경과 네트워크, 산출물 간에 강한 인과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이다. 샌드스트룀과 칼슨 (Sandström and Carlsson, 2008)은 정책 네트워크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이에 따른 성과 간 관계성을 파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일반 네트워크 이론은 네트워크 형성에 선행하는 변인으로서 환경적 요소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¹⁸⁾에서 지적하였듯이 어떤 네트워크이든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18) 권기창 (2003), pp. 203-230; 박양우, 이유리 (2013), pp. 257-285; 야스모토 아츠코 (2018), p. 16.

다수의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환경, 네트워크, 산출물 간의 밀접한 인과 관계를 형성한다. 나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경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가 산출물에 각각 미치는 본질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유용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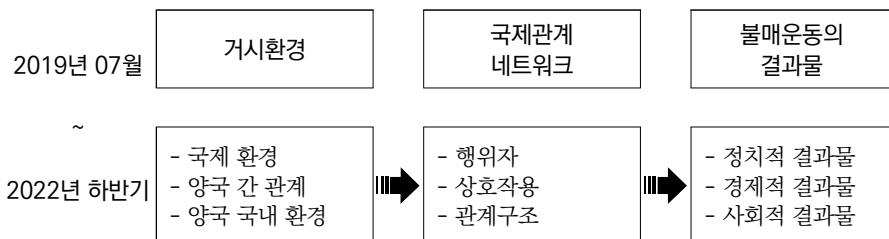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거시 수준’에서 국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일반 네트워크 이론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인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탐구한다. 국가를 중요 행위자 중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준이 거시적 차원에 수렴하게 된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미시·중위 수준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조직, 기업 등도 중요 행위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제관계 형성의 근간이 되는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거시 수준의 연구 수행이 가능한 점에서 일반 네트워크 이론과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본 연구의 논제인 불매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relevant) 접근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전개 과정을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구성 요소가 환경, 네트워크,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분석 수준에서 미시·중위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거시 수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지해야 할 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이 행위자들 간 ‘협력’만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인식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이 행위자들의 협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론적 효용성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국제관계 주체 간의 반목과 대립과 같은 음성 행위를 대상으로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할 때 유용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국제관계에 있어 반목의 주요 지점으로 작용하는 ‘불매운동’이 어떻게 형성, 강화, 지속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그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이 방법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이론을 활용하였다.

3. 연구 모형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은 국가 간 관계 분석에 있어 국제 환경, 양국 간 관계, 양국 국내 환경,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2개 범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 발생 이후 2022년 하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형성 및 전개된 과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이를 위해 거시환경-국제관계 네트워크-불매운동의 결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출처 : 저자가 직접 작성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분석 범주 중 1차원에 속하는 국제 환경, 양국 간 관계, 양국 국내 환경은 본 연구에서 거시환경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분석 범주 중 2차원에 속하는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본 연구 모형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 따라 거시환경-국제관계 네트워크-불매운동의 결과물의 구조적 관계를 질적 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표 1>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전개 과정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

구분	분석 범주	분석 내용
거시환경	국제 환경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 기간(2019년 7월~2022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질적 분석
	양국 간 관계	
	양국 국내 환경	
국제관계 네트워크	행위자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실체들 전체 행위자 수, 국가 행위자 및 비국가 행위자 여부
	상호작용	국제관계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교환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활동 상호작용의 성격(적극성, 소극성 여부), 상호작용의 빈도(접촉의 정도)
	관계구조	국제관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의 관계 형태 관계구조 형태(양자 간 협력, 다자 간 협력 여부), 관계구조 유형(수평적, 수직적 여부), 영향력 관계(균형적, 불균형적 여부)
불매운동 결과물	정치적 결과	거시환경-국제관계 네트워크 간 영향관계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 후, 그 결과에 기초해 불매운동의 결과물을 정치적 결과물, 경제적 결과물, 사회적 결과물로 각각 제시
	경제적 결과	
	사회적 결과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시간적 범위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설정하였다. 거시환경으로서 국제 환경, 한일 양국 간 관계, 양국의 국내 환경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분석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인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불매운동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IV. 일본 제품 불매운동 사례 분석

1.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진행 상황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대상을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 사례로 설정하였다.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2022년 하반기까지 이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산출물을 시간적 변화 과정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촉발기, 확장 및 조정기, 잔존 및 소멸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확장 및 조정기는 이 불매운동이 확장된 기간과 조정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잔존 및 소멸기는 이 불매운동이 잔존해 여전히 그 기세가 남아 있던 기간과 거의 모든 한국 소비자가 더 이상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확장 및 조정기와 잔존 및 소멸기는 확장되다가 조정을 맞은 시점과 잔존해 있다가 소멸된 시점이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촉발기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공표했다.¹⁹⁾ 그 결정 내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종류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전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 조치는 공표 후 3일째 되는 날인 2019년 7월 4일에 곧바로 본격 발효되었다. 2019년 7월 3일, 한국의 온라인상에 일본제품불매목록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²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대응은 한국 정부에 의해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다. 2019년 9월 6일, 한국의 서울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조례안을 가결했다.²¹⁾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뜻을 표하는 조례, 결의안, 성명서 등을 채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19) 国立国会図書館, “詳細検索,” <https://warp.da.ndl.go.jp/search/archivesearch/WE05-Search.do> (검색일: 2023년 5월 1일).

20) 『조선일보』, “중소상인·자영업자 “일본 제품 안 팔아…담배·맥주 등 반품하기도”,” 2019년 7월 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2644.html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21) 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18842311062266B&rs=/files/trans/board/66/9/>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bill/view.busan?menuCd=DOM_000000103008000000&billS_id=13133&totalSearch=TOTAL&totalSearchKeyword=%EC%9D%BC%EB%B3%B8%20%EC%A0%84%EB%B2%94%EA%B8%B0%EC%97%85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표 2>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소비자불매운동 관련 주요 일지

구분	일자	내용
촉발기	2019. 07. 01.	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들을 한국 수출 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반도록 규제하겠다고 공표
	2019. 07. 03.	한국의 일본제품불매목록 웹사이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언론 기사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소비자의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발발
	2019. 08. 07.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2019. 08. 12.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2019. 08. 28.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2019. 09. 06.	한국의 서울·부산시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가결
확장 및 조정기	2019. 09. 11.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의요청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송부
	2019. 1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2019. 12. 20.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일부 완화 조치 시행
	2019. 12. 24.	중국 사천성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잔존 및 소멸기	2020. 05.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인 낫산, GU, 영애슬럿, 올림푸스 4개사 한국 철수 발표
	2022. 03. 11.	한국의 노재팬 웹사이트 운영 종료

출처: 저자가 사례연구를 위해 수집한 증거 자료에 기초해 작성

둘째, 확장 및 조정기의 주요 사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불이익 발생을 예상한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11일에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다.²²⁾ 한국에서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유효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국제관계 경색을 완화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의 대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2019년 12월 20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부 완화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이 약화되는

22) WTO,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590-1.pdf&Open=True> (검색일: 2023년 5월 2일).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대립 관계의 해소 노력 속에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의 협력을 다시 모색하게 되었다.²³⁾

셋째, 잔존 및 소멸기의 주요 사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불매운동 기세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한국 소비자 세력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2020년 5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 닛산, GU, 영애슬릿, 올림푸스의 4개사가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사회적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거 중 하나로서 2022년 3월 11일 불매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의 노노재팬 웹사이트(<https://www.nonojapan.com>)가 운영을 종료했다. 이후 한국의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사실상 종식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2. 한국 소비자불매운동의 촉발기

1) 촉발기의 거시환경 분석

한일수교 이후 한일 양국은 우방국으로서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 하는 태도와 발언을 일삼을 때마다 한국 국민은 격렬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 2018년 11월,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한일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²⁴⁾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본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²⁵⁾

23) 『조선일보』, “아베 “문대통령, 언행 부드러운 신사…자주 만나길 기대”, 2019년 12월 28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8/2019122800520.html (검색일: 2023년 5월 3일).

2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3%EB%8B%A461381>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25) 和仁 健太郎, “元徴用工訴訟問題と日韓請求権協定,”『国際法学会エキスパートコメント』 No. 2019-8 (東京: 国際法学会, 2019); 竹内 康人, 『韓国徴用工裁判とは何か』(東京: 岩波書店, 2020); 出石 直, “戦後補償訴訟における元徴用工問題と日韓関係,” 日韓国交正常化 50周年を超えて, 『現代韓國朝鮮研究』 15 特輯41 (東京: 現代韓国朝鮮学会, 2018).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양국 정부나 국민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은 매우 끈끈한 형태로 결속을 유지하며 상호간의 이익 증대를 위해 동반자로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속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내 기업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반발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여겼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적 항의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 국민들이 대거 참여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거세게 발발하였다.

2) 촉발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1) 행위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해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발발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게 한인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²⁶⁾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일본정부는 이미 한일 간 협정을 통해 합의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²⁷⁾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플루오린화수소의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²⁸⁾ 일본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자 이 소식을 접한 한국 국민들 중 다수는 크게 분노했고 반일 감

2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2018).

27) 尾形 武寿, “「徵用工問題」における「韓国」の身勝手,” <https://blog.canpan.info/nfkouhou/archive/1282>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28) 経済産業省,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검색일: 2023년 5월 3일).

정이 격화되기 시작했다.²⁹⁾ 한국과 일본 간 수출 및 무역상 빚어진 마찰 및 충돌은 양국 정부, 정치인, 관료, 언론기관 등의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을 초래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 불매운동의 참여 및 지지 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2) 상호작용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에 해당하는 2019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행위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은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이어졌고,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의 고조와 함께 일본불매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 확산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일본제품 불매목록 웹사이트 운영자, 언론기관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였으나, 현실주의 이론이 실제 상황에 작동하듯 이 기간 동안 상호작용을 시도한 유일한 행위자는 한일 양국 정부뿐이었다. 하지만 그 상호작용의 성격은 접촉의 빈도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3) 관계구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에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행위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유일하다. 이 두 정부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소통 시도만으로 판단했을 때 2019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유일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의 단행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 대처를 하기에는 급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관계구조 요소 중 영향력의 관계는 급작스런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이 조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한국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³⁰⁾

29) 『東京新聞』, “韓国 政府・市民、規制撤回要求 日本の対韓国輸出規制,” 2019년 7월 5일, <https://www.tokyo-np.co.jp/article/2390> (검색일: 2023년 5월 6일).

30) 우미월, 이종윤, 전종우 (2021), pp. 106-133, 202.

(4) 촉발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종합

촉발기에 형성된 국제관계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 범주인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로 구분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에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행위자 요소 중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지만, 네트워크에 관여한 행위자가 국가 행위자에 국한되어 행위자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요소는 그 성격이 소극성을 띠고 있었고, 빈도도 단 1회에 그쳐 주기성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주기적이었다. 관계구조 요소는 그 형태는 양자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구조였고,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이상적인 관계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띠었다. 하지만, 영향력의 관계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미쳐 대응 준비를 취하지 못한 한국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불균형적 관계였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촉발기의 불매운동 결과물 분석

(1) 정치적 결과

한국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 참여가 매우 높은 수위를 보인 것은 한국 정부 관료 및 다른 정치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³¹⁾ 국회 정치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작용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과 여러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응 조치의 노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 요청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2019년 8월에 개최되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양국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결실 없이 끝난 점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 협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에 정치적 결과물은 한국 정부에게는 강한 정치적 부담을 준 반면에, 일본 정부에게는 강한 정치적 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31) 전봉근,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IFANS FOCUS』IF 2019-12K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1-3.

(2) 경제적 결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1일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품목에 대해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데 그쳤다. 이 시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친 단기적 영향은 국책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²⁾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 한국에서 발발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속히 줄어들어 일본의 관광산업에도 경제적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2019년 8월, 일본 방문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8% 급감했는데, 이 수치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래 최대 감소 폭으로 기록되었다.

(3) 사회적 결과

2019년 일본 정부가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치·외교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 간 국제관계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여겨질 정도로 심한 후폭풍이 예견되었다.³³⁾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언제든 한마음으로 결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2019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조치에 대해 지지하는 쪽과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쪽으로 진영이 갈렸다. 물론 이러한 의견 충돌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어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국민이 보인 행보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의 국민은 일본 불매운동이 국민의 결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지만, 일본의 국민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사회적 효과 내지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32) KDI, “경제동향,”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pub_no=16248&media=main (검색일: 2023년 5월 6일).

33) 每日放送, “ぶつかりあう日韓～徴用工裁判の核心～,” <https://www.mbs.jp/eizou/backno/19112400.shtml> (검색일: 2023년 5월 26일).

3. 한국 소비자불매운동의 확장 및 조정기

1) 확장 및 조정기의 거시환경 분석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정 조치를 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이후 취한 일련의 조치가 정치적 보복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적대적 조치라고 해석하였다.³⁴⁾

한일 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출구와 해답이 보이지 않는 대립이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양국은 오래전의 역사적 대립을 2019년 현시점에도 반복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자의 경제적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었다. 정치적 동기가 경제적 손실의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2019년 하반기 동안 한일 양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2) 확장 및 조정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1) 행위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정 조치를 구하기 위해 2019년 9월 11일에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있었던 직후인 2019년 9월 20일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것은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한 것 이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합당한 절차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 일 뿐이고 세계무역기구의 제반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4) WTO (2019).

2019년 12월 16일에 한일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 그간 잘 좁혀지지 않았던 한일 양국 간의 이견이 다소간 합의점을 찾아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1년여간 지속된 갈등 국면이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 만큼의 외교적 성과는 만들어 내지 못했고, 대화 국면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었다.

(2) 상호작용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에 해당하는 2019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행위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³⁵⁾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았고, 협의 석상에 나와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의지는 보였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언론사들 또한 상대 국가의 언론사들과 소통하며 일본 불매운동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동의제를 제시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다. 이같이 한일 양국의 언론도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일본 불매운동의 해결을 지향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못했다.

(3) 관계구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에도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행위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유일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뚜렷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확장 및 조정기에 나타난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한일 간의 국제관계가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대국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적극

35) WTO (2019).

적으로 표명하면서 대립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네트워킹을 지속해 나갔다. 2019년 12월 말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국제관계 네트워크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다.

(4) 확장 및 조정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종합

확장 및 조정기에 형성된 국제관계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 범주인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로 구분해 질적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에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행위자 요소는 촉발기와 동일하게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지만, 네트워크에 관여한 행위자는 국가 행위자에 국한되어 행위자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요소는 촉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성격은 적극성을 띠고 있었고, 빈도도 다수의 협상 기회를 가져감으로써 소정의 계획이 작동한 주기성이 생겨나 주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계구조 요소는 그 형태는 양자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구조였고,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이상적인 관계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영향력의 관계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계였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3) 확장 및 조정기의 불매운동 결과물 분석

(1) 정치적 결과

한국 정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9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단행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다.³⁶⁾ 한국 정부는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부당한 사례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강행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강하게 인식한 듯한 행보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정부도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지속적

36) WTO (2019).

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 9월 이후 일본 국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신뢰도는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2) 경제적 결과

일본 정부의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2019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의 한일 양국 경제적 상황을 살펴 보았다. 이 시기의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일본 경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 물량은 99.9% 급감하는 바람에 사실상 퇴출되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10월 기준 일본 재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 감소폭은 23.1%에 달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거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2019년은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도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내수 소비 침체에 일본 불매운동은 그 침체의 깊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무역에 의한 손실에 더해 내수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를 일본 불매운동의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했다.

(3) 사회적 결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확장 및 조정기에 나타난 주요 사회적 결과물로는 미닝아웃과 동조화 현상의 상반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국민 중 20대와 30대가 이러한 미닝아웃 성향을 강력히 드러냈는데, 이들은 과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원한 일본 기업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 기업의 제품에 대한 집중적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정도로 강한 정치적 신념을 토대로 소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는 동조화 현상의 상반성이 목격되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2019년 7월 이후 12월까지 지속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의 소비자들에게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의 동조화 현상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소비자 사이에는 매우 상반된 소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소비자불매운동의 잔존 및 소멸기

1) 잔존 및 소멸기의 거시환경 분석

2020년 한일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지향했으나, 대북 정책과 역사 문제 가 심화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2020년 10월, 일본의 스가 정권이 출범한 직후 한국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고 일본 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의지를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한일 간 교섭은 정체되었고 출구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했다. 2020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되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회담 참가 불가 방침 때문이었다.

일본의 스가 정권은 강제징용문제 청구권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원활히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재차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의 외무 장관을 면담하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2021년 중재자 역할에 나서며 제안한 투트랙 (Two Track) 전략과 유사한 제안이었다.

2) 잔존 및 소멸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1) 행위자

2019년 12월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

를 시행하면서 한일 양국 간 경색된 관계는 완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2020년 6월 재개하였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재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와 정상적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정책적 결정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간 전개된 한국에서의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2020년 5월,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인 닛산, GU, 영애슬럿, 올림푸스, 이렇게 4개사가 한국 철수를 발표한 것이었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한국 국민들이 주도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멸의 길로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단서가 포착되었다. 한국의 노노재팬 웹사이트는 2019년 7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이 웹사이트가 2022년 3월 11일부로 운영을 종료하였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2019년 12월 말 일본 정부가 이 수출 규제 조치 일부를 완화하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마찰은 감소하였다. 이후 양국의 역사 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 대립적 구도는 2022년 후반기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2) 상호작용

한일 양국 정부의 대립적 구도는 재차 강하게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정상 간 협의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실무자 간의 접촉 빈도는 2019년 9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계속 어려운 안갯속 상황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여러 실무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일 양국 간 협상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다각적 행보를 가져갔지만, 일본은 협상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대립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기와 확장 및 조정기에는 한일 양국 정부 외 국제관계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뚜렷이 전개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 이후부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장기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3) 관계구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잔존 및 소멸기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행위자는 다각화되는 모습을 띠었다.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한일 양국 정부 외에 민간 영역의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지속되는 국면이 생각보다 오래 전개되었는데, 미국은 중재자로서 개입하려는 의지를 강고히 했다. 미국은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역사 문제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별개로 다룰 것을 한일 양국에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의 민간 영역 상호작용 분석에서 나타난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겐론 NPO의 공동 조사 연구에서 보여준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민간기관 간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이 실시한 공동 조사 연구는 조사 연구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학술적 협업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4) 잔존 및 소멸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종합

잔존 및 소멸기에 형성된 국제관계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 범주인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로 구분해 질적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잔존 및 소멸기에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행위자 요소는 촉발기와 확장 및 조정기 시기와 동일하게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다. 상호작용 요소는 촉발기와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 정부는 다소 적극성을 띠며 양국 간 소통을 재개하려 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과도한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소극적 태도를 일관했다. 그 결과 양국 정부 간의 소통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관계구조 요소는 미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개입하게 됨에 따라 다자간 협력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수직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여전히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관계 형성을 위한 조율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각 단계별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비

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각 단계별 국제관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합

국제관계 네트워크		질적 분석 결과		
		촉발기	확장 및 조정기	잔존 및 소멸기
행위자	전체 행위자 수	다수	다수	다수
	행위자 유형	국가 행위자 (한국·일본 정부)	국가 행위자 (한국·일본 정부)	국가 행위자 (한국·일본 정부), 민간기관
상호 작용	성격	소극적 상호작용	적극적 상호작용	소극적 상호작용
	빈도	비주기적	주기적	비주기적
관계 구조	관계구조의 형태	양자간 협력	양자간 협력	다자간 협력
	관계구조의 유형	수평적	수평적	수평적, 수직적 혼재
	영향력 관계	불균형적	균형적	불균형적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3) 잔존 및 소멸기의 불매운동 결과물 분석

(1) 정치적 결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잔존 및 소멸기 시기의 시작은 2020년부터였다. 이후 2022년까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은 한일 양국 모두 '대립적 구도의 지속'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정부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촉발하던 당시와 다르게 양국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다. 새 정권이 양국 정부를 맡게 되어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한국 정부의 대일본 대화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일본의 새 정부는 보수 우익 성향의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는 일본과의 대승적인 합의를 시작하였고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 회담을 진행하였다.

(2) 경제적 결과

2020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경제적 결과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퇴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의 사업적 성과를 등에 업고 한국 시장에 진출한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유수의 기업들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2019년 7월 이후 사업 수익이 급전직하하였다. 유니클로의 경우에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무료 이벤트까지 진행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 진출 일본 기업들 중 다수는 한국시장 철수를 최종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경제적 결과물로 2차 소비자 불매운동의 전개 속에 한국 기업 일부도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과의 연관성이 높은 한국 기업 중 하나인 ‘롯데’의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미시적 경제 변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 경제에 미친 거시적 영향은 뚜렷이 구분해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결과

2019년 7월부터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2020년 들어 점차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1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로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2019년 7월 온라인 상에서 촉발되었는데, 불매운동 네트워크는 단시간에 확산되었고, 불매운동 네트워크 구성원은 대부분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20대와 30대였다.

일본 불매운동의 소멸에도 깊숙이 관여하는데 2021년 일본 불매운동에서 MZ세대가 대거 이탈하면서, 불매운동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기에, 일본불매운동의 촉발과 소멸이 MZ세대의 ‘불매운동 참여도’와 일치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MZ세대는 한국의 일본불매운동의 주체 세력으로서 여타 한국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인구 집단으로서 기능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잔존 및 소멸기에 접어들면서 소비문화의 주도권이 MZ세대로 이전된 것이 눈에 띄는 사회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진행의 시간적 범위 내 주요한 전환점에 초점을 두어 시기별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별로 거시환경, 국제관계 네트워크, 불매운동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촉발기, 확장 및 조정기, 잔존 및 소멸기를 분석한 결과, 한일 간에는 정치적 협상에 따른 외적 변화와 함께, 대중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후 한일 간 이상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대중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계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촉발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행위자 요소 중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지만, 네트워크에 관여한 행위자가 국가 행위자에 국한되어 행위자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요소는 그 성격이 소극성을 띠고 있었고, 빈도도 단 1회에 그쳐 주기성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주기적이었다. 관계구조 요소에 있어 그 형태는 양자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구조였고,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이상적인 관계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띠었다. 영향력의 관계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미처 대응 준비를 취하지 못한 한국이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불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확장 및 조정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행위자 요소는 촉발기와 동일하게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지만, 네트워크에 관여한 행위자는 국가 행위자에 국한되어 행위자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요소는 촉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 성격은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빈도도 다수의 협상 기회를 가져감으로써 소정의 계획이 작동한 주기성이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계구조 요소는 그 형태는 양자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구조로서, 수평적 구조의 이상적인 관계구조를 형성하였다. 영향력의 관계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하여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잔존 및 소멸기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행위자 요소는 촉발기와 확장 및 조정기 시기와 동일하게 전체 행위자의 수는 다수였다. 하

지만 이전 시기와 다르게 네트워크에 관여한 행위자는 민간 기관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상호작용 요소는 한국 정부가 다소 적극성을 띠며 양국 간 소통을 재개하려 노력한 반면,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과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했다. 관계구조 요소는 미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개입하게 됨에 따라 다자간 협력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여, 초강대국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수직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 및 일본 간에는 여전히 수평적 구조를 취하며 관계 형성을 위한 조율을 추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향력의 관계에서는 일본 정부는 대화를 단절하더라도 선결 과제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살펴야 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양국 간 관계 형성에 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 간 국제관계를 적정히 형성하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일 양국 정부의 정치화된 정책 태도에 대해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 국제관계 프레임은 합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투트랙의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는 향후 해결 과제로 해 두고, 우선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의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단계적 관계 개선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 외 국제관계 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촉발 이후 양국 정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네트워크 행위를 한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정부 외 행위자들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영역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국제관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양국 국민의 여론을 양국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 관계의 효과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중재국가의 개입을 통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자로 나서는 외교 전략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중재국가로서의 역할을 맡을 의사를 표명한 만큼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중재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본 측 행위자가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 분석을 위해 일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폭넓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가운데 네트워크 분석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과 이론적 전제를 활용해 질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량적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계량적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행위자들 관계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경우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태중.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66권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 _____.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 태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콘텐츠 노출 및 방문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70권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 권기창. “인터넷내용 규제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 김병찬·황진수.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캐주얼 일식 레스토랑의 고유성과 행동의 도 연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1).
- 김보경·김미경. “본 관광불매운동의 참여동기와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 『관광경영연구』 제25권 제1호 (관광경영학회, 2021).
- 김선경·양재대·원준연.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행정논총』 제41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3).
- 김영수.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제4권 제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 김재권·윤지환. “불매운동 관련 특성이 온라인 불매운동 태도와 관광보이콧에 미치는 영향: 일본 불매운동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35권 제2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1).
- 김희연·한인숙.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 박양우·이유리.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28권 (한국예술경영학회, 2013).
- 송유진. “텍스트 마이닝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특징과 의의 탐색.” 『소비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20).
- 야스모토 아츠코. “한일 국제관광협력의 발전과정 분석: 국제관계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8).
- 우미원·이종윤·전종우. “일본 제품과 일본 콘텐츠제품 불매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광고연구』 제130권 (한국광고홍보학회, 2021).
- 유현정·송유진. “불매운동로고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불매운동 참여의도와 불매동참업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이화사회과학원, 2020).

- 이상연·이유나. “문제해결 상황이론의 적용을 통한 온라인 공중의 사회적 쟁점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위 분석: 한·일 관계악화에 따른 일본불매운동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 이순호. “사회복지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분석시각.” 『한국자치행정학보』 제14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0).
- 이정기·황우년. “20대 대학생들의 지속적 일본 관광불매 의도 결정요인연구: 불매운동 미디어 노출, 일본 인식, 불매운동 효능감 인식,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9권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 이정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일본 불매운동 미디어 분석: 일본 항공노선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충남: 한서대학교, 2020).
- 전봉근.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IFANS FOCUS』 IF 2019-12K (서울: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전은지. “일수출규제, 역사교육으로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학생 중심 불매 운동.” 『교육평론』 제322권 (주간교육신문사, 2019).
- 정성춘·김영귀·이천기·김승현.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서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
- 竹内 康人. 『韓国徴用工裁判とは何か』 (東京: 岩波書店, 2020).
- 出石 直. “戦後補償訴訟における元徴用工問題と日韓関係.”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超えて, 『現代韓國朝鮮研究』 15 特輯41 (東京: 現代韓國朝鮮学会, 2018).
- 和仁 健太郎. “元徴用工訴訟問題と日韓請求権協定.” 『国際法学会エキスパートコメント』 No. 2019-8 (東京: 国際法学会, 2019).
- Emirbayer, M.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3, No. 2 (1997).
- Eric Hanson, B.A. “A Network of Nations: Why Effective Cybersecurity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eorgetown University Master thesi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2009).
- Kahler, M.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Kim, Ji Young. “Symbolic politics, the history problem, and the Japan-South Korea security relationship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University of Delaware Doctoral thesis (DE: University of Delaware, 2011).
-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97).

Sandström, A., and L. Carlsson. "The performance of policy networks: The relation between network structure and network performance." *Policy Studies Journal*, Vol. 36, No. 4 (2008).

Waarden, F.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1, No. 12 (1992).

Maoz, Zeev.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신문〉

『조선일보』. "중소상인·자영업자 "일본 제품 안 팔아…담배·맥주 등 반품하기도"." 2019년 7월 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2644.html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조선일보』. "아베 "문대통령, 언행 부드러운 신사…자주 만나길 기대"." 2019년 12월 28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8/2019122800520.html (검색일: 2023년 5월 3일).

『東京新聞』. "韓国 政府·市民、規制撤回要求 日本の対韓国輸出規制." 2019년 7월 5일. <https://www.tokyo-np.co.jp/article/2390> (검색일: 2023년 5월 6일).

〈인터넷 자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3%EB%8B%A461381>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18842311062266B&rs=/files/trans/board/66/9>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bill/view.busan?menuCd=D0M_000000103008000000&billSid=13133&totalSearch=TOTAL&totalSearchKeyword=%EC%9D%BC%EB%B3%B8%20%EC%A0%84%EB%B2%94%EA%B8%B0%EC%97%85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KDI. "경제동향."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pub_no=16248

&media=main (검색일: 2023년 5월 6일).

WTO.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590-1.pdf&Open=True> (검색일: 2023년 5월 2일).

経済産業省.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검색일: 2023년 5월 3일).

国立国会図書館. “詳細検索.” <https://warp.da.ndl.go.jp/search/archivesearch/WE05-Search.do> (검색일: 2023년 5월 1일).

毎日放送. “ぶつかりあう日韓～徴用工裁判の核心～.” <https://www.mbs.jp/eizou/backno/19112400.shtml> (검색일: 2023년 5월 26일).

尾形 武寿. “「徴用工問題」における「韓国」の身勝手.” <https://blog.canpan.info/nfkouhou/arcive/1282>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ABSTRACT]

Analysis of Japanese Products Boycott with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Yeongho Jin |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Youngwan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ogang University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by South Korean consumers can be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conflic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from July 2019 to the end of 2022, using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ing the trigger of the boycott,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ppeared as an imbalanced relationship in which South Korea was unable to prepare for Japan's unilateral measures and expected to suffer some economic losses. Based on the analysis of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expansion and adjustment periods of the boycott,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an be seen as a balanced relationship in that both governments active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negotiate for a common agenda and made efforts to achieve their respective interests. During the extinction periods of the boycott, South Korea and Japan have continued to adopt a horizontal structure and pursue coordination for a better relationship. The analysis of this process show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future improvement in South Korean-Japan relations by promoting voluntary actions of the public for fundamental changes in public awareness along with external changes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s.

Key Words: South Korea-Japan relations, Boycott movement,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ade disputes

투 고 일: 2023.05.06.

심 사 일: 2023.05.18.

게재확정일: 2023.06.01.